

아라한에 이르면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여

불가(佛家)나 선가(仙家)에서도 회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개운조사가 퍼뜨리는 '유가수련증험설'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수도를 하여 올라가면 회춘을 하게 된다.

첫번째 단계는 수다원(水田)에 수다원과를 얻으면 입에 단점이 된다. 몸에 지닌 병이 저절로 낫는다. 단전(丹田)이 따뜻해지고 용모가 맑아진다. 탐욕이 일지 않게 된다. 이는 감로를 먹으면 입에 단점이 고여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승리제단에서 새식구 21일 교육 과정을 수료한 새식구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위와 같은 체험을 했다고 한다.

두번째 단계는 사다함(沙田)이다. 사다함(沙田)을 얻으면, 기운이 충만하여 몸이 나는 듯 가벼워진다. 눈에서는 번개같은 광채가 뿜어온다. 시력이 아주 좋아져서 백결을 밖에 있는 머리카락도 볼 수 있다. 또 흥터와 주름살이 저절로 없어진다.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 며칠씩 굶어도 힘이 넘친다고 한다.

이 경지 또한 감로를 받으면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승리제단 식구들의 간증이 있는 것을 보아 쉽게 이해된다.

세번째 단계는 아라함(阿羅漢)이다. 아라함과를 얻으면 붉은 피가 하얀 기름으로 바뀐다. 노인네는 도로 젊어진다. 하얀 백발이 검게 변하며, 빠졌던 이도 다시 난다. 또 손을 대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 입김으로 수운을 말릴 수도 있다. 추위나 더위를 전혀 안 탄다. 맨손으로 바위에 글씨를 새길 수 있다. 자태는 옥(玉)으로 다듬어 놓은 나무와 같이 아름다워진다. 피부는 금빛이 돌며 투명해진다. 정신이 한없이 맑고 맑아서 잠이 안 온다. 오랫동안 잠을 안 자도 전혀 피로해지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고대하던 바를 그대로 얻었다고 있다. 도로 젊어지는 것이다.

네번째는 아라한(阿羅漢)이다. 아라한(阿羅漢)이면, 티 하나 없이 맑고 드높아져서 하늘과 일치한다. 마음은 항상 화엄국(華嚴, 천국, 仙界)에서 노닌다. 세상과 인간의 일을 모두 알 수 있다. 아득한 과거의 일, 까마득한 미래의 일도 모두 환하게 헤아린다. 또 공덕과 수행이 부처님을 빼놓는다. 눈에는 붉은 노을이 가득하고 금빛 광채가 온몸을 감싼다. 주위에 오색구름이 둘러싸며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하늘 높이 날기도 하고, 한 순간에 수천 수만리 떨어진 곳을 옮겨가기도 한다.

현재 감로를 내리는 생미륵불은 변신의 능력이 있어 불덩어리로 변할 수 있고 별의별 몸으로 변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능력이 있기에 불경에 기록된 그대로 온 우주에 먼지와 같은 그러한 몸으로 우주에 꽂혀 있으면서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생미륵불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지구 땅속을 통과하여 반대편의 남아메리카 우루과이를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초창기에 이제 변신의 몸으로 이제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순간 이제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기 때문에 즉시 원상복구해서 사람 몸이 되어가지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보여줄 것 다 보여줬죠? 이 사람이 다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사람 몸으로서 청량리에서 역곡까지 5분 내에 올 수가 없어요. 사람 몸으로는 못 오기 때문에 그때는 빛으로 불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쉬어~ 날아오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예요.” _ 2001. 3. 28. 이진자 말씀

생미륵불은 온 우주와 신경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에, 온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포착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모르면 우주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한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희생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나라는 주체의식에서 해방이 되어야 하나님을 보는 눈과 그 시각이 바로 열리는 것이다. 그때부터 죄악의 생각이 침입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나라라는 주체의식이 있는 한, 항상 나라라는 주체의식인 마귀의 조종을 따라 움직이는 고로,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 항상 죄 안에서 살게 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생각을 깊이하고 오래해도 안 된다. 나를 버리기 전까지는 안 된다. 나를 버리는 방법은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희생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서 되는 것이다. 희생적인 생활 없이는 “내 몸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희생보다 더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비틀어지고 이곳저곳 아픈 몸, 바르고 균형 있게 만드는 요가 ^^

동작 ① : (어깨 피기) 금강좌로 목을 바로 세우고 가슴을 앞으로 쭉 내민다. 두 팔은 등 뒤로 깎지킨다. 이 상태에서 조금씩 상체를 앞으로 숙여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한다. 이때 팔은 가능한 수직이 되도록 한다. 20~30초 유지, 5회.



동작①

동작 ② : (척추 좌우 비틀기) 왼쪽 무릎을 세워 편안하게 구부러진 오른쪽 허벅지 위로 교차시킨다. 오른쪽팔을 활용해 왼쪽 무릎을 오른쪽 겨드랑이 가까이 당기고 왼쪽 팔은 등 뒤로 돌린 채 어깨와 목을 함께 비튼다. 20~3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



동작②

동작 ③ : (어깨 서기) 바닥에 곧게 누운 후 등의 중간부분까지 들리게 다리를 쭉 뻗어 올린다. 이때 손으로 허리를 지탱하고, 허리와 목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0~30초 유지, 5회.



동작③

동작 ④ : (나무 자세) 바르게 서서 팔은 위쪽으로 쭉 뻗어 합장하고 왼쪽 발바닥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붙인다. 20~3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



동작④



격양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53회

정도령이 계신 새로운 장막은 별천지(別天地=別乾坤)仙境(仙境)이나라

별천곤

[본초 설명] 素砂籙林天旺地 (소사범박천왕지)란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자리잡고 있는 밀실이 하늘의 왕성한 기운이 서린 천왕지라는 뜻이다. 또한 밀실 반쪽은 시흥시 계수동에 속하고 있기에 蘇萊白石桂樹地 (소래백석계수지)라고 확실하게 못박고 있다. 그런데 밀실은 분명히 노고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으로 소래산인가? 바로 밀실에서 마주 바라보는 산이 소래산이기 때문이다. 격양유록 '밀운'에는 밀실과 노고산과 소래산에 관련된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栢讀者生 衆護者死 隱居密室生活計 弓乙乙 避亂圖 (시모자생 중모자사 은거밀실생활계 궁궁을피란국)

☞ 김림나무를 피하는 자는 살 것이요 우리를 따르는 자는 죽으리라 밀실에 은거하는 계책이 있으니 궁궁을 이간자의 피할 곳이라.

◎ 老人女古 草魚禾辨來 相望對坐地 三神帝王始出時 三神山 如出時 善者多生 惡者多死 (노인여고 초어화초래 상망대좌지 삼신제왕시출시 삼신산인 여출시 선자다생 악자사)

☞ 노고산(老=老人, 姑=女古)과 소래산(蘇=草魚, 萊=禾)이 서로 마주보는 곳에 삼신제왕이 출현할 때에 선한 사람은 대부분 살(영생할) 것이요 악한 사람은 죽는다.

隱秘歌(十) 은비가

五運之中 오운지중

一運論則 赤血千里 四年間

일운론즉 적혈천리 사년간

二運論則 赤血千里 二年間

이운론즉 적혈천리 이년간

三運論則 赤血千里 一年間

삼운론즉 적혈천리 일년간

四運論則 赤血千里 月間

사운론즉 적혈천리 월간

五運論則 赤血千里 日間

오운론즉 적혈천리 일간

二字空面無空里 이자공면무공리

漢都中央指驛線 한도중앙지위선

東走者死西入生 동주자사서입생

上二字面下二里 상이지면하이리

吉星指示面里明 길성지시면리명

南東面臥牛長壽地 남동면와우장수지

素砂籙林天旺地 소사범박천왕지

富內曉星延壽地 부내효성연수지

東春新堡 住地 동춘신대 주지

蘇萊白石桂樹地 소래백석계수지

桂陽楊村仙住地 계양박촌선주지

此地通合星照臨 차지통합성조림

말세에 겪게 될 다섯 가지의 비운(悲運)이 있으니 첫 번째 운을 논한 즉 붉은 피가 천리(千里)에 4년간 흐름이니 곧 입진왜란이요 두 번째 운을 논한 즉 붉은 피가 천리(千里)에 2년간 흐름이니 6.25사변이요 세 번째 운을 논한 즉 붉은 피가 천리(千里)에 1년간 흐름이니 병자호란이요 네 번째 운을 논한 즉 붉은 피가 천리(千里)에 몇 달간 흐름이니 4.19혁명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운을 논한 즉 붉은 피가 며칠간 흐름이니 천지개벽의 직전의 일이다. 면(面)과 리(里) 두 글자가 있는데 면(面)

도 텅 비어있고 리(里)도 아무도 없고 비어 있으니 즉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던 땅에서 천지공사를 하고 있으니 한양(서울)의 중앙에서 지휘하듯 하느니라. 동쪽에서 달아나는 자는 죽고 서쪽에서 들어오는 자는 살리라. 서기동래(西氣東來)하니 동방 한국 땅을 떠나면 살 범박이 없고 서방에서 동방 한국으로 오면(동방 한국에 나타난 청림도사 정도령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느니라.

위로는 면(面)자 앞에 두 글자가 있는 것과 아래로는 리(里)자 앞에 두 글자가 있는 곳이니 길(吉)한 별이 밝게 비추어 가리키는 면(面)과 리(里)이로다. 소래면(蘇萊面)과 계수리(桂樹里)를 말한다. 남동(南東)쪽을 향하여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불로장수(不老長壽)하는 땅이나라. 소사(素砂) 범박(範朴)의 땅은 하늘의 기운이 왕성한 곳이요 부평(富平) 부천 관내로 새벽별(효성曉星=길성吉星)을 상징하는 주인공이 나와 수명을 연장하게 해주는 곳이요 동방에 영원히 봄만 있는 신천지의 터전으로 기쁨과 쾌락 속에서 살아갈 곳이요 소래(蘇萊) 소사(素砂=백석白石) 계수(桂樹)의 땅이요 소래 소사 계수 범박은 신선이 사는 곳이요 이곳을 새벽별이 밝게 비추어 임하는 곳으로 조(情=조미단풍구비) 조표표지인 궁을심승(궁을심승)씨가 나와 유불선을 하나로 통합하는 곳이다.

海印龍宮開日月 해인룡궁한일월
木人新幕別乾坤 목인신막별천곤
風驅惡疾雲中去 해인룡궁한일월
雨洗冤魂海外消 우세원외해외소
別有天地非人間 별유천지비인간
武陵桃源弓地 무릉도원궁궁지
聖山聖地吉星地 성산성지길성지
兩白三農有人處 양백삼농유인처
非山非野何處地 비산비야하처지
瀛洲方丈蓬萊山 영주방丈봉래산
紫霞島中亦此地 자하도중역차지
聖住蘇萊老姑地 성주소래노고지
人生造物三神主 東海三神亦此山 인생조물삼신주 동해삼신역차산

감로해인의 주인공이 있는 궁궐은 조용하고 한가한 가운데 밝고 밝은 빛이 나며 목인(木人) 즉 정도령이 계신 새로운 장막은 별천지(別天地=別乾坤)仙境(仙境)이니라. 악한 모든 질병(疾病)을 봄바람으로 몰

아 구름 속으로 보내 없애버리고 원통하게 죽은 모든 혼령들을 해인의 비로 씻어 바다 밖으로 보내 없애버리니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이 살던 세상이 아닌 별천지요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이요 심승의 지상선경이 되니라.

성산성지(聖山聖地)는 길한 별이 비추어 임하는 곳으로 화우로 삼봉해인을 뜻대로 용사하는 양백 심승인이 계신 곳이다.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닌 그곳은 어디인가? 영주(靈州) 방장(方丈) 봉래(蓬萊)산을 뜻하는 삼신산(三神山)이요, 자하도(紫霞島)인 남쪽 조선에도 역시 이런 곳이 있으니 삼위일체의 성인(정도령)이 거하신 이곳은 소래산 노고산(蘇萊老姑)이 있는 땅이요 인생과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삼신일체 구세주 하나님도, 동방 땅광 땅 모퉁이의 나라(東方海隅半島)에 있던 삼신산도 역시 이 산을 상징하였느니라.*

박명하 / 고서연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진리 | 영생 전도 문답 [26]

질문: 승리제단에서는 영생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몸이 영생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이 영생한다는 것입니까?

답변: 사람의 영이 뭐지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음이 있고 또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스바나 3장 17절에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인간 속에 없으면, 생각도 할 수 없으며 손발을 움직이면서 걸어다니는 생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1장 1절).

질문: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신이 거주하는 집과 같은 것이네요. 하나님의 신이 어떤 사람에게 영원 무궁토록 머물고 계시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답변: 또 다른 구세주 하나님의 신을 우리 마음 속에 영원무궁토록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질문: 방금 인간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굳이 또 다른 하나님의 신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답변: 또 다른 하나님의 신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으며, 불경에서는 생미륵불의 분신이 되는 감로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나 감로는 원죄(선악과)가 되는 나라라는 주체의식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신이요 사방권을 쥐고 있는 마귀를 죽여서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늘 패배하고 억눌려서 마귀 종노릇만 하고 있는 우리 인간 속의 하나님 마음에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 하나님의 신을 모셔야 그때부터 영생 길을 가는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강림할 때에 기쁨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되신 구주를 맞이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질문: 이 세상에 스스로 도통했다고 하는 자칭 도사라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승리제단에 방문하면 전도가 가능합니까?

답변: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과거에 내가 치유능력이 있어 병자를 많이 고쳤다는 등 축지법을 사용해서 이 안에서 저 산으로 마음대로 왕래했다는 등,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여기 승리제단에서는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뒤돌아보는 음란죄”라고 합니다. 이게 도의 시작이니까.*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 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